(3) 송씨 집안과 안씨 집안의 소송

송익필: '사노비 송익필 형제를 체포하라!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숨은 죄인을 당장 잡아들이라'라는 임금의 전교는 저의 형제에 대한 최후통첩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집안에 소송이 일어난 것인가요.

송익필: 때는 1589년(선조 22) 12월에 송씨 가족 모두 안씨 집안의 노비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양반으로 살아온 송씨 가족은 갑자기 사노비의 신분으로 떨어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죽기 살기로 도망쳐 숨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화가 난 안씨 집안은 추노를 고용하여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로 갈라진 두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노비 소유권 문제지만, 실제는 3대에 걸친 안씨 가문의 복수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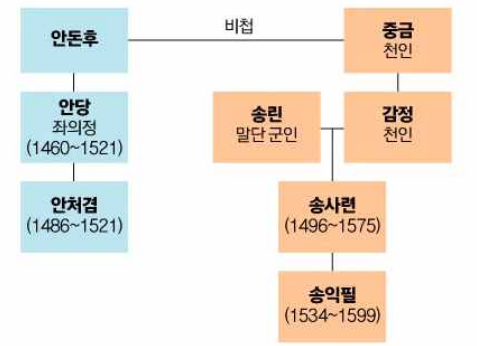
강민우: 원고 안씨 집안에 따르면, 송익필 선생의 할머니인 감정은 <노비를 면제해 주는>면천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에 그 소생은 모두 자신들의 노비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외아들 송사련은 송익필 등 4남 1녀를 낳아 소송 당시 그 자손은 70여 명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였죠.

송익필: 피고 송씨 집안은 할머니 감정이 105년 전에 이미 양인이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1481년 장예원 입안' 문서를 제시합니다. 원고 안씨 집안은 '감정이 노비이지만 재산을 나눌 때 노비 한두 구(口)를 주어 물 긷는 노고를 면케 하라'는 증조 안돈후의 유서를 내보입니다.

강민우: 장예원은 1467년(세조 13) 정월에 노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중앙관청의 하나입니다. 다툼의 사안은 노비 감정이 양인(良人)이 되는 절차를 밟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있는 듯합니다.

송익필: 할머니 감정은 안씨 집안 외증조할아버지 안돈후와 여종 중금(重今)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녀는 안씨 집안의 주선으로 양인 <할아버지>송린과 혼인하여 <아버지>송사련을 낳습니다. 노비종모법에 따르면, 감정은 안가 소유의 노비이므로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집니다. 외증조할머니 중금의 신분이 본래 노비였으므로 신분제에 따라 그의 딸 감정은 안당 가문의 노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정이 평민 송린과 혼인하여 송사련을 낳았으니, 송사련의 신분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안당 가문의 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송사련은 안당의 도움으로 천한 신분을 면하고 관직에 올라 잡직인 관상감 판관을 지냈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양반인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양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흥 안씨, 여산 송씨 가계도



강민우: 종모법(從母法) 또는 노비종모법은 조선시대 세종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노비 제도로서, 양인 남자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모계를 따라 노비가 되게 하는 신분법입니다. 노비 자녀의 신분이 모계 혈통을 따른다는 제도입니다. 결국 감정이 노비이므로 감정과 양인인 송린 사이에서 태어난 송사련도 노비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원고와 피고는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로 처지는 다르지만, 촌수로는 6촌입니다. 원고는 안돈후의 자손 28명이고, 피고는 감정의 자손 68명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감정은 50년 전에, 그 아들 송사련은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양측은 문서의 진정성과 소멸시효 등을 따지며 법적 논증을 펼칩니다.

강민우: 어떤 이유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나요.

송익필: 저의 외증조할아버지 안돈후는 고려 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안향(安珦)의 직계 후손으로, 좌의정을 지낸 안당의 아버지입니다. 안돈후는 부인이 죽자, 그의 형 노비와의 사이에서 딸 감정을 낳고, 그 딸은 평범한 군인인 송린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저의 아버지 송사련입니다. 그러니 송사련의 노비 출신 어머니와 안당은 배다른 남매간입니다.

강민우: 안당은 송사련을 서얼이라 차별하지 않고 그가 정5품 벼슬인 관상감 판관까지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지요. 송사련은 서얼 신분에도 26세의 젊은 나이로 정3품 당상관이 되었고요. 그의 출세는 안당과 안당의 아들 안처겸 형제를 역모죄로 고발하여 얻은 대가라고 한다지요.

송익필: 송사련은 안당의 아들이자 자신과는 외사촌 형제인 안처겸·안처근 형제를 역모죄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사화를 주도한 남곤·심정을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비판했는데, 이에 송사련은 곧바로 처남 정상(鄭瑺)을 대동하고 대궐로 들어가 안처겸을 고발합니다.

강민우: 적자와 서자를 크게 따지지 않은 안당 부자는 피를 나눈 서얼 조카 송사련을 내 가족처럼 챙기고, 또한 일 처리에 밝은 송사련은 안씨 집안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도맡아 왔기

에 그의 고발은 더 설득력을 얻었고요. 송사련의 고발이 있은 지 닷새 만에 안처겸 형제 등 10여 명은 처형되고 안당은 목매어 죽습니다. 집안의 재산과 노비는 모두 송사련이 몰수합니다. 또 송사련의 벼슬도 정3품 당상관에 오릅니다. 고발자인 송사련은 네 임금을 거치며 40년간 당상관을 지키다가 천수를 다하고 80세로 세상을 떠났다지요.

송익필: 이런 일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으므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상관 자제로 유복하게 성장합니다.

강민우: 송사련에 대한 당시 여론은 "나랏일에 격분하여 한 말을 고발하여 재앙을 꾸며서 옥사를 얽은 사건", "남곤과 심정이 송사련을 사주하여 꾸민 사건"이며, 그 대가로 송사련이 얻은 것은 관직과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구인 성혼도 송사련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지요. 송사련의 장사 때 이이가 신주를 써준 일을 못마땅해하자, 이이는 성혼에게 "상주들의 간절함에 어찌 못해 응한 것이다"라고 고백했다지요. 송익필 선생의 친구인 성혼과 이이마저도 송사련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듯합니다. 그러다가 명종 말엽에 사림파가 다시 집권하면서 그 화가 선생님께 미치게 된 것이죠.

송익필: 안당 일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공론이 사림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안당 집안에 잘못이 없음이 밝혀지면서 신원이 복권되고 임명장도 주어집니다. 반면 저의 일가에게는 재앙이 되어 재산은 안당 집안에 환수되고, 집안 식구들은 안당 일가의 노비로 전락합니다. 이때 저는 동인 이산해로부터 율곡을 비난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지만, 이를 거절하자 이산해의 분노를 삽니다. 이로써 저는 동인에게 공공의 적이 됩니다.

강민우: 송사련은 80세로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부귀를 누렸지만, 신분과 도리를 중시하는 선비들은 송사련을 심히 비난하였겠어요.

송익필: 서인의 반전은 곧이어 터진 정여립과 관련한 '기축옥사'로 이루어집니다. 기축옥사로 1,000명 가까운 동인과 그 관련자가 희생되면서 동인은 서인과 경쟁에서 대패합니다. 이 옥사를 진행한 사람은 정철(鄭澈)인데, 정철의 배후에 송익필이 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 원한이 옥사를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를 두고 당쟁의 기획자, 노론 집권을 설계한 책략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강민우: 아버지 송사련의 권세와 재물에 힘입은 송씨 집안의 자식들은 소위 고급 교육을 받아 양반의 사위가 되거나 종실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멸문의 화를 당한 안씨 집안의 가족들은 고통과 울분의 세월을 보내야 했겠군요.

송익필: 안씨 집안과 송씨 집안은 할머니 감정을 사이에 두고 65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안씨 집안사람들은 조부 안당과 부친 안처겸과 숙부에게 역모죄를 걸어 죽이고 멸문의 화를 입힌 원수를 응징하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고령이던 안당의 손자이자 안처겸의 아들인 안로는 재판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내 윤씨가 바통을 넘겨받아 승소를 끌어냅니다.

강민우: 안씨 집안 자손들은 70여 명의 노비를 원하기보다 선조의 억울함을 공식화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한 것이겠지요. 소장이 접수되던 날 가족 대표로 법정에 선 송익필 선생은 소멸시효 등의 국법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변론하였다지요. 8~9세에 이미 천재로 소문나고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지식을 꿰뚫고 있는 선생님께서 행한 변론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도 재판관은 '순리를 거역한다'라며 56세의 대학자에게 곤장을 매우 쳐서 내보냈다지요.

송익필: 저에 대한 평가가 냉혹했습니다. 재판관의 입에서 '법리'가 아닌 '순리'가 나온 것은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원수로 삼아 공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곤장을 맞고 내쳐진 저에게 6개월간의 법정에 몸을 드러내는 대신 막후에서 소송을 지휘하였다고 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서인 측에서는 제갈량이라 부르지만, 동인 측에서는 모사꾼이라고 했다지요. "그의 처신이나 행적을 보면 재주나 기예는 월등하지만, 학문은 그저 '스스로 잘난 체하고 과장하여 떠벌리는 말'을 늘어놓는 데 불과하다"(『택당별집』 권15)라는 당대의 평가도 있다지요. 또한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부친의 악업에 엎드려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송익필 선생의 학문은 빛나는 업적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었죠.

송익필: 저의 복권은 제가 죽은 지 24년 후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조반정은 사실상 서인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게다가 인조반정의 두 주역 중 하나인 이귀(李貴)는 저의 제자이며, 또 다른 주역인 김류는 저에게 잠시 글을 배웠고 그의 아버지 김여물도 저의 제자입니다. 더욱이 인조반정의 명분이 영창대군을 죽게 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한 광해군의 패륜 행위를 바로잡으면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법이 강조되며 저의 예학도 주목받습니다.

강민우: 인조반정은 1623년(광해군 15) 이귀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당인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조(능양군 이종)를 왕으로 옹립한 정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산림에 있으면서 서인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김장생은 인조에게 건의하여 자신의 스승인 송익필 선생을 복권시켰던 것이군요.

송익필: 또 김장생의 제자 송시열은 송준길(宋浚吉)과 의논하여 저의 묘비명을 짓고 비석을 세웁니다. 그 후 영조 때는 정5품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고, 급기야 1910년에는 종2품 홍문각 제학에 추증되면서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이는 조선왕조가 망하기 한 달 전 일이니, 노론이 앞세운 예학이 권력투쟁의 선봉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강민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소송을 진행할 당시 선생님은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봉'으로 불리는 그는 고양 구봉산(현재 심학산) 아래에 터를 잡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타난 13세의 김장생을 비롯하여, 그 문하에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죠. 한 살 아래의 성혼과 두 살 아래의 이이와는 학문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였는데,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 『삼현수간(三賢手簡)』은 현재 보

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송익필 선생은 서인의 대부이자 학술계의 리더이며 정계의 멘토였습니다. 게다가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기를 죽이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모두가 우러러보던 그가 60세 가까이에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선대의 악업(惡業)이라고 말합니다.